

2019년 2월 19일

KIWOOM DAILY

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사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유럽 증시, 자동차 업종 부진 속에 혼조 마감 미 상무부 '자동차 관세 보고서' 제출 여파로 자동차 업종 부진

S&P500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지속

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는 보합권 혼조 마감. 미·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제출한 자동차 관세 관련 보고서 여파로 폭스바겐(-1.41%), 다임러(-0.57%) 등 자동차 업종의 부진이 특징. 한편, 22일부터 열리는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관련 협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부담(독일 -0.01%, 영국 -0.24%, 프랑스 +0.30%, 이탈리아 +0.58%)

미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미·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모습.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실적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. 지난 15 일(금) 까지 S&P500 기업중 79%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어닝서프라이즈율은 70%에 달함. 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S&P500 기업들의 4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.1% 증가한 것으로 추정. 이런 가운데 2019 년 1 분기 S&P 500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.2%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이익 증가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실제 팩트셋은 S&P500 영업이익이 1 분기(yoy -2.2%)에 이어 2 분기(yoy +1.5%), 3 분기(yoy +2.5%), 4 분기(yoy +9.1%)도 증가폭도 제한돼 2019 년 전체로는 전년 대비 4.8%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. 이 또한 미·중 간의 관세 발효가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닝 리세션(earnings recession, 이익 감소 현상)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 그렇기 때문에 미·중 무역협상에서 추가관세 발효가 멈추는 것도 중요하지만, 기존에 부과된 2500 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도 중요. 관련 관세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미국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.

2019년 1분기 S&P500 영업이익 전망치

섹터	12/31	2/15	조정폭
헬스케어	9.2%	6.2%	-3.0%
유틸리티	3.9%	5.0%	1.1%
산업재	6.8%	3.1%	-3.7%
부동산	2.8%	1.7%	-1.1%
금융	3.2%	-0.8%	-4.0%
필수소비재	1.4%	-1.3%	-2.7%
S&P500	3.5%	-2.2%	-5.7%
커뮤니케이션	0.6%	-3.2%	-3.8%
경기소비재	0.1%	-4.6%	-4.7%
소재	6.9%	-9.1%	-16.0%
IT	-1.9%	-10.1%	-8.2%
에너지	16.6%	-11.2%	-27.8%

자료: 팩트셋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동락률(%)	Close	D-1	지수동락률(%)	Close	D-1
KOSPI	2,210.89	+0.67	홍콩항셍	28,347.01	+1.60
KOSDAQ	745.33	+0.90	영국	7,219.47	-0.24
DOW	25,883.25	휴장	독일	11,299.20	-0.01
NASDAQ	7,472.41	휴장	프랑스	5,168.54	+0.30
S&P 500	2,775.60	휴장	스페인	9,155.50	+0.35
상하이종합	2,754.36	+2.68	그리스	667.46	+1.89
일본	21,281.85	+1.82	이탈리아	20,329.83	+0.58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종목 장세 지속 전망

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(-682 계약) 여파로 0.35pt 하락한 286.40pt 로 마감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25.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미국 4 분기 S&P500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.1% 증가하는 등 견조한 모습이나 2019 년 1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.2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특히 IT 업종이 전년 대비 10.1%나 감익되는 등 이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이는 한국 증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다.

KOSPI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감익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 특히 최근 한달간 KOSPI 영업이익이 7%넘게 하향 조정 되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초 양호한 펀더멘탈에 기대 상승을 했다면, 이제는 우호적인 펀더멘탈 이슈는 약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미·중 무역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일본 기계 주문 양호

일본 핵심 기계 주문은 전월 대비 0.1% 감소했다. 그러나 이는 시장 전망치(mom -1.1%)를 상회하는 견조한 모습이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국제유가 시간외로 56 달러 상회

국제유가는 CME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시간외로 상승 했다. 달러 약세 및 미-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WTI 기준으로 56 달러를 넘어 섰다. 다만, 브렉시트 이슈 부각 및 미-EU 간에 자동차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어 상승은 제한된 경향을 보였다.

달러화는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. 한편, 파운드화는 영국 외무장관이 EU 와 브렉시트 종료일 이전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. 한편, 22 일부터 이어지는 EU 정상회담에서 영국과 EU 간 협상이 이어진다는 점도 파운드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.

채권금리는 휴장인 가운데 시간외로 미-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. 다만, 미국내 정치적인 마찰이 부각된 점을 감안 상승은 제한되었다.

금은 시간외로 달러약세에 기대 상승 했다.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미-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.79% 상승 했으며 철근 또한 1.26% 상승했다.

주요 상품	종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종가	D-1(%)	D-5(%)
WTI	55.59	휴장	+5.44	Dollar Index	96.777	-0.13	-0.29
브렌트유	66.50	+0.38	+8.11	EUR/USD	1.1314	+0.16	+0.34
금	1,322.10	휴장	+0.27	USD/JPY	110.58	+0.10	+0.18
은	15.743	휴장	-0.42	GBP/USD	1.2928	+0.30	+0.57
알루미늄	1,856.00	-0.16	-1.28	USD/CHF	1.0041	-0.11	+0.02
전기동	6,275.00	+1.41	+2.03	AUD/USD	0.7132	-0.13	+0.99
아연	2,638.00	-0.57	-0.23	USD/CAD	1.3239	-0.04	-0.47
옥수수	382.75	휴장	+0.13	USD/BRL	3.7328	+0.85	-0.60
밀	507.00	휴장	-2.41	USD/CNH	6.7733	+0.04	-0.40
대두	921.50	휴장	-0.78	USD/KRW	1125.80	-0.26	+0.10
커피	101.65	휴장	-3.74	USD/KRW NDF1M	1125.45	+0.04	+0.03

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종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2.663	휴장	+0.90	스페인	1.225	-1.00	-1.40
한국	1.997	+3.20	+5.70	포르투갈	1.508	-5.00	-14.30
일본	-0.022	-0.10	+0.70	그리스	3.756	-4.70	-24.00
독일	0.110	+0.90	-1.00	이탈리아	2.764	-3.20	-13.30